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 의향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 언론 브리핑 “삼산·망북지구 인허가 문제 많아 집합건물 엄중한 잣대 들이대야”

노관규 순천시장이 삼산·망북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향이 있다”고 4일 밝혔다.

노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언론인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삼산·망북지구 사업은 대법원과 1심 소송에 계류 중이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승인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입주 대가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망북지구 관련 판결문을 보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공동주택 인허가 강화와 관련해선 “마치 전임 시장의 뒤를 캐는 것



노관규 순천시장이 4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처럼 비취질 수 있어 부담은 되지만, 집합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고층 아파트 인허가도 교통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평가위원들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공동주택 허가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적정성 및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순천시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공원 사업과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처분은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순천시는 2016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망북·삼산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삼산공원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된 상태로, 다음달 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 웅천~소호 연결

선소대교 개통

도심권 교통흐름 개선

여수 웅천~소호를 연결하는 ‘선소대교’(사진)가 지난달 임시 개통된 후 웅천 생태터널에서 여수 시청으로 이어지는 도심권 교통흐름이 개선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 생태터널과 선소대교의 교통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평균 약 7000여 대의 차량이 선소대교로 우회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우려되던 도원사거리 주변도 교통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신호체계를 개선해 기존과 비슷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출퇴근 시간대 소호동 장성마을에서 선소대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좌회전 차량 정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 백세미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

곡성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백세미’(사진)가 최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됐다.

전남도는 전남 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해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 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품종, 품질, 품위, 증속속 등 8개 분야를 엄격히 심사한다. 때문에 선정 자체만으로도 맛과 안전 모두에서 높은 품질임을 증명받는 셈이다.

유기농 백세미는 구수한 누룽지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곡성의 대표 쌀이다. 단백질 함량이 5.3으로 낮고 도유



식치미 85이상으로 밥맛이 좋다. 또한 아미로오스 함량이 12±1%로 낮아 향과 식감을 장시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맛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다. 백세미는 석곡농협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100%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한다. 특히 계약 재배 단계에서부터 육묘, 건조, 저장, 가공까지 전 단계가 GAP 인증시설에서 관리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백세미가 전남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곡성군과 석곡농협, 농업인의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백세미 재배 농가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세미는 올해부터 글로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에서 판매를 시작하며, 백세미를 활용해 만든 누룽지는 지난해 아미존 전남도 브랜드관 스타 품목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주암호생태관 생태습지 해설사 13명 배출

주민 13명 7회 양성교육 수료

보성 주암호 생태습지 전문해설사가 탄생했다. 보성주암호생태관은 생태습지 해설사 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1기 생태습지 해설사 13명(사진)을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생태습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보성주암호 생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대표 김영관)에서 주관하여 보성군 주민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류, 식물, 양서류, 곤충 등 습지 생태에 대한 교육과 해설사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됐다.

해설사 양성과정은 수료한 생태습지 해설사들은 보성주암호 생태관 및 생태습지를 찾는 방문객의 안내와 학교 현장 체험교육에 참여하고 향후 보성



지역 습지 전문해설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주암호 생태습지 해설사 양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환경 관련 해설사의 저변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암호생태관 및 생태습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사랑상품권 10% 할인’ 12월까지 연장

고흥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흥사랑상품권은 2019년 10월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설 명절 및 상반기 10% 특별할인으로 135억원을 판매, 21년 상반기 대비 22억원 판매량이 증가했고 지난해부터는 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돼 지금까지 총 1030억원이 판매됐다.

상품권은 개인 구매 시 월 50만원까지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가맹점주, 법인(단체)은 할인이 구입이 제한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축협, 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44개소에서 구입가능하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2220개 업체(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농협 또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발급 가능했던 고흥사랑카드(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의 발행기관을 확대해 우체국에서도 고흥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흥사랑카드는 ‘chak’ 앱을 통해 카드발급부터 충전, 사용내역,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도 농협, 우체국에서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착공

문화재 조사 완료, 문화재청 허가 사업비 73억 투입...내년 6월 완공

광양시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양시는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광양읍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광양매일시장을 현대화해 새로 짓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기존상인들의 영업권 보호와 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광양읍 읍내리 252-1번지 일원(옛 경찰서)에 임시시장을 조성했다.

광양읍성의 주요 문화 유적지인 광양매일시장의 재건축 공사에 앞서 올해 1-6월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구(적심시)와 유물(기와 및 자기류)이 발견됐으나 잔존상태가 후대 교란으로 인해 불량하고 정연하지 못해 사진 도면 등 기록 보존하기로 결론지었다.

시는 문화재청의 최종 착공 허가를 얻음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상인회와 주민들에게 사업개요와



광양매일시장 조감도.

현안사항 설명 등 조기 착수의 필요성을 알리고 7월초 공사를 착공키로했다.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 증축 2434.75㎡, 리모델링 372.87㎡, 연면적 2807.62㎡로 추진한다.

정구영 광양시 지역경제과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광양시, 공사관계자, 상인회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